

PA-86

충북의 들깨 재배 현황과 실태김영상^{1*}, 김기현¹, 윤철구¹, 이경자¹, 김익제¹, 홍성택¹, 이명희²¹충청북도농업기술원²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서론]**

들깨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식물성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α -linolenic acid)를 약 60%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오메가-3의 우수한 근원으로 국내에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들깨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주작목을 재배하고 2기작으로 들어가는 작목으로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계화율이 낮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충청북도의 들깨 재배면적은 5,919ha로 전국 43,352ha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들깨 재배 실태를 조사하여 들깨 재배의 문제점 발굴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충부 지역의 들깨 재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지역을 북부(제천시, 단양군), 중부(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청주시), 남부(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권역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작성하여 권역별 20농가를 현장 방문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작부체계, 재배양식, 파종기 및 수확시기, 수확 후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충북지역의 들깨 재배농가 현황은 농가의 평균 연령은 67세로 재배경력은 19년이었다. 조사된 농가의 100%가 노지에서 재배 하였으며, 농가당 재배면적은 약 10a(1,000m²) 정도로 남부(1,122m²) > 중부(940m²) > 북부(815m²) 순으로 많았다. 10a 당 들깨 수량은 111kg 이었으며, 남부 124kg, 중부 111kg, 북부 98kg으로 전국 평균 120kg/10a에 비하여 93% 수준이었다. 들깨 재배농가의 파종 및 수확 후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종자구입 방법은 자가채종이 34%, 외부구입이 66%를 나타냈으며, 품종형태는 100% 유색깨를 재배하였다. 파종방법은 인력파종이 65%, 기계파종이 35%를 나타냈으며, 수확후 관리방법으로 노지에서 대부분 건조하였으며 하우스나 시설을 이용한 건조는 2% 미만이었다. 들깨의 파종시기는 6월 1일 ~ 6월 20일경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수확은 72%가 10월 8일 ~ 10월 20일 경에 수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충북의 들깨 재배 면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계 파종율을 높여야 하며 수확후 시설을 이용한 관리로 생력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250105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43-220-5571, E-mail. suanbo@korea.kr